

C-22. Socket seal technique을 이용한 발치와의 치조골 보존술

김승중, 피성희, 신형식, 유명근
원광대학교 치주과학교실

연구배경

일반적으로 발치 후, 발치와에서는 오직 부분적인 골 충전만이 일어난다(Lekovic V. 등 1997). 혈병 수축과 구강 내 잔사의 축적은 발치와의 완전한 재생을 어렵게 하고 그 결과 원래의 치조정 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골충전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전치부에서의 협측 피질골의 소실은 비심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발치 시의 치조골을 보존할 수 있다면 임플란트 식립 시에 부가적인 연, 경조직 이식의 필요성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이번 증례를 통하여 발치 시 발치와의 보존을 통한 임플란트 식립부의 치조골 보존에 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임플란트 식립 예정인 환자를 대상으로 발치 시에 발치와에 동종골(ICB, Irradiated Allogenic Cancellous Bone, Rocky Mountain Tissue Bank, USA) 이식을 시행하고 이식 부를 구개부에서 채취한 유리 치은을 이용하여 피개하였다. 발치 후 4개월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발치와의 치유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조직학적인 생검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임플란트 식립 시에 치조골 정상부까지의 골재생을 관찰할 수 있었고 특히 협측 피질골판의 보존을 관찰할 수 있었다. 조직학적인 평가 시에 발치와 내부에는 이식된 동종골의 흡수와 함께 신생골의 형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결론

발치 후 골흡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주위조직에 대한 외상을 최소화하는 발치를 시행하였고 발치와 내부에서 흡수되어 생활골로 대체될 수 있는 동종골을 출혈되는 발치와에 이식하였다. 또한 발치와를 외부 환경과 차단하기 위하여 구개부에서 채취한 유리치은을 이용하여 피개하였다. 발치와의 흡수는 최소한으로 발생하였으며 발치와 내부에서는 안정적인 신생골 형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술식을 통해 발치 후 발생하는 치조골의 흡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특히 심미적인 부위에서의 임플란트 치료 시에 예견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